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5. 10. 14(수)	
		작 성 문 의	규제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손동균 / 사무관 정재상 (Tel. 044-200-2416)
<p>2015.10.14(수), 10:00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

국무조정실, 제2차 경제단체·기업인 릴레이간담회 개최

- 14일~16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, 현장과의 소통 및 애로해소 추진
- 추 실장, “기업의 경제활력 저해 규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감히 풀 것”

- 국무조정실은 14일(수)부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경제단체* 및 관계 기업인들을 차례대로 만나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논의하는 ‘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’를 개최.

* 대한상의·중견련(10.14), 중기중앙회·벤처협회(10.15), 전경련(10.16)

- 이번 간담회는 금년 3~4월에 실시했던 ‘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’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에서 개최한 것으로,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소해 주기 위한 것임

※ 경제단체 서면건의 1차(‘14.12월) : 과제 114건 중 111건 완료(97.3%)

현장건의 2차(‘15.7월) : 과제 123건 중 76건 완료(61.8%, 금년내 92% 예정)

- 추 실장은 14일(수)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첫 간담회에서 “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력을 저해 하거나,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,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풀 것”이라고 말했음

- 추 실장은 또한 “현장중심,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, 총리실 규제신문고 및 민관합동추진단의 기업 애로 발굴·해소 노력과 더불어, 현장과의 소통 및 애로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”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음

- 이번 ‘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’는 14일(수) 대한상공회의소·중견기업연합회를 시작으로 15일(목) 중기중앙회·벤처기업협회, 16일(금) 전국경제인연합회로 이어지며,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의 건의를 지속해서 수렴·해소해 나갈 예정임.